

절제된 연출로 그려내는 승부의 세계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김형주 감독 '승부'

오래 전 일이다. 한 미국 여성이 내게 불었다. “잠이안와서채널을뒤적이다보면바둑채널이있는데, 대체이렇게재미없고딱딱한채널은누가보나요?” 필자역시바둑이라곤오목외에둔적이없는터라 “일종의체스...” 얼버무리며 쉽게 답을 못했다. 당시에는 바둑인구가 꽤 많았다. 1980년대 기준 1500만 명에 달했을 정도로 국민 취미 1순위였으니 TV채널이 있을 만했다. 현재 바둑인구는 2023년 기준 883만 명이고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바둑을 둘 줄 아는 수준이므로 1500년을 이어온 한국 바둑의 역사는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수 인구가 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있어서 앞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1988년(영화와 달리, 실제로는 1989년 9월이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독보적 아나운서 차인태가 전하는 MBC 9시뉴스 “조훈현 9단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응창기배 세계바둑대회에서 중국의 섭위평 9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의 룰은 백이 8점을 선점하고 무승부인 경우에는 백이 이기는 것이었는데, 조훈현은 흑이라 꽤 불리한 조건이었



김형주 감독 '승부'.

바이포엠스튜디오 제공

다. 그러므로 흑으로서는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한국 프로 바둑 사상 최초의 세계 제패인만큼 환희에 찬 조훈현(배우 이병헌)은 “이제 바둑의 신과 대결해도 이길 것 같습니다”라는 김포공항에서의 인터뷰를 마친 후 종로2가 한국기원까지 카퍼레이드를 벌이며 금의환향했다. 정부는 그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5개월 후, 이를 축하하는 행사 다면기(한 명의 고수가 여러 명의 하수를 상대하여 동시에 여러 대국을 두는 일)가 야외 대국장에서 열렸다. 이곳에서 두각을 보이는 한 소년 이창호(아역배우 김강훈)와의 조우는 마치 조훈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하다. 그는 창호에게 숙제를 하나 내준다. 어느날 우편물을 통해 숙제를 푼 창호를 만나기 위해 훈현은 전주행을 하고 그날 대국 후에 창호를 내제자로 들인다. 상경

이튿날. 기원에 간 창호는 여러 사람을 이긴 후, 관심이 쏠리자 다면기를 두며 기원을 뒤집어 놓고는 귀가한다. 집에서 스승 훈현의 따끔한 수업이 이어짐은 물론이다. “포석(중반의 판을 위해 초반에 돌을 배치하는 방법, 대국자의 성향을 드러냄), 행마(활로와 영역을 넓혀나가는 방법), 수읽기(상대방이 둔 수의 의미를 해석하고 장차 일어날 변화를 예상, 추리하여 최선의 수를 선택하는 과정)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기본부터 배우라. 승패를 떠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이다. 반드시 오른손으로 두라, 이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체력을 단련하라. 손이 먼저 나가면 경솔함, 대충 타협하려는 안일함, 조급한 승부를 보려는 오만함은 패배의 수순이다... 스승 조훈현은 이기는 법을 강요하지 않으며, 이창호는 스승의 바둑을 탐구하며 묵묵히 자신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간

다. 내제자가 된 지 5년이 지나 15세 중학생이 된 창호(배우 유아인)는 바둑인으로 내공이 더욱 깊어져 있다. 심지어 스승 조훈현의 기보를 평가할 만큼 성장해 있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를 그 누가 이길 것인가? 급기야 창호는 대결 대국을 이기고 올라와 마지막 결승에서 스승 훈현과 맞붙는 일이 계속된다. ‘청출어람’, 기특함을 기반으로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지욕을 이제 두 사람 모두 겪는 일에 접어든 것이다.

감독은 사운드나 화려한 영상기법, 편집 등을 배제한다. 묵묵히 시간의 흐름과 감정선을 따라가는 절제된 연출로 내공을 표현하고자 한다. 인물의 침묵, 눈빛, 복기하는 뒷모습만으로 감정을 끌어낸다. 배우 이병헌은 조훈현의 자존심, 고독감, 회한 등을 밀도 높게 표현해낸다. 어느 경우는 배우의 얼굴이 조훈현의 얼굴로 착시될 만큼이다. 유아인은 이창호의 고요한 집중력과 내면의 파장을 묵직한 시선으로 구현한다. 배우 유아인이 마약 혐의로 재판받은 끝이라(영화가 그 이전에 만들어졌음에도) 자숙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만큼 숨기 없는 17세 소년의 묵묵함을 잘 전달하고 있었다.

영화는 승패를 나누지 않는다. (실제로, 총 311번의 대국에서 조훈현이 119승, 이창호가 192승을 거두었지만...) 조훈현의 내적 갈등과 고통 끝에 제자의 승리를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영화의 핵심이다. 스승은 제자의 수를 받아들이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바둑판 앞에 앉는다. 바둑을 통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었지만, 스스로도 배우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바둑기법관이 조훈현의 고향 영암에 설립되었다 한다. 영화도 보았으니 봄나들이를 이곳으로 가볼까 싶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기분상해죄



취재수첩
한규빈
디지털콘텐츠본부 기자
gyubin.han@jnilbo.com

기분상해죄. ‘기분이 상하다’와 ‘상해죄’를 결합한 말로 ‘기분을 상하게 한 죄’라는 뜻이다.

온라인상에서는 누군가의 행동이 단순히 기분이 상해 이뤄진 것 같아 보이면 비

필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다.

최근 K리그 팬들 사이에서는 이 기분상해죄가 널리 쓰이고 있다.

광주FC의 사령탑인 이정호 감독이 지난달 29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 하나은행 K리그 1 2025 6라운드 맞대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심판들의 심기를 거슬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기록에는 이 감독의 퇴장 사유가 항의로 명시됐다.

다만 중계에는 이 감독의 항의가 노출

되지 않았고, 강성주 해설위원의 멘트를 통해 물병을 바닥에 던졌다는 것이 알려졌다.

경기 후 김성기 경기감독관의 설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병을 바닥에 던진 것이 아닌 발로 찬 것으로 정정됐을 뿐이었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의 경기규칙에 따르면 음료수 병 또는 다른 물체를 던지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경고 조치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물체를 경기장으로 던지거나 발로 찼을 때만 퇴장이 가능하다.

송민석 주심이 규칙을 잘못 적용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 감독은 직전 경기에서

서 심판진과 정면으로 대치한 바 있다. 이 감독은 지난달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은행 K리그 1 2025 4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당시 박병진 주심은 과열되는 경기 흐름을 조절하지 못했다. 결국 조성권은 어정원과 공중 경합 과정에서 그라운드에서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고 이송됐다.

이 감독은 이 장면을 두고 최승환 대기심에게 선수 보호를 요구했고, 중계를 통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하필 이 직후 열린 경기에서 이 감독이 석연창게 퇴장을 당하면서 지도자 길들이

기라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손한 지도자인 이 감독이 심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것.

이 감독에게 규칙이 잘못 적용됐지만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사후 징계 및 감면제도 적용 대상을 선수로 한정하고 있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도 기분상해죄라는 비판을 더한다.

윤정환 인천유나이티드 감독도 지난해 강원FC 지휘봉을 잡고 있던 당시 같은 장면으로 경고가 아닌 퇴장 조치를 받았으나 억울함을 홀로 떠안았다. 결국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규정을 개정하고, 심판진은 판정에 신중을 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